

## RH 네거티브형의 임신

최 차 혜 · 산부인과 원장, 전문의

**R**H 혈액형의 홍보가 많이 되어있  
는 요즘도 병원을 찾는 임신부  
중에는 꼭 알아야 할 RH(네거티브)  
혈액형을 가진 여성의 임신, 유산, 분  
만 등과 관련된 의학상식이 결여되어  
있어 의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가  
끔 있다.

### RH 네거티브 임신부가 겪은 일화

26세의 젊은 주부가 만삭이 되어  
남편의 부축을 받고 병원을 찾아 왔  
다. 임신부는 제대로 진찰 받을 여유  
도 없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 
있는지 얼마 안되어 사내아이를 낳았  
다.

그런데 산모의 상태가 나쁘고, 전  
신의 부종과 심한 황달을 보인 아기를  
보는 순간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서  
산모의 혈액형을 물으니 RH네거티브  
라고 한다.

3대 독자에게 시집 온 여자는 남편  
과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의 아기를  
갖게 되어 임신 중절을 한 일이 있었  
는데 이것을 감추고 시집와서 가진 아  
기가 이 아기였다.

RH-형의 여자가 첫 임신이 된 경우  
RH+의 피를 가진 태아의 혈액(1cc미  
만의 소량이지만)이, 임신중절 또는  
분만으로 태반이 박리되는 순간 엄마  
에게로 역류되어 RH+에 대한 항체를  
형성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임신되는  
아기 혈액의 적혈구를 분해함으로써  
혈액의 용혈현상을 일으켜 아기로 하  
여금 태내 빈혈, 전신부종, 황달을 일  
으켜 유산이 되거나, 다행히 분만까  
지 성공한 경우라 해도 바로 교환수혈

을 해주지 않으면, 아기 상태가 예측  
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지는 것이  
다.

이 산모의 아기는 서둘러 교환수혈  
을 받았으나 워낙 상태가 나빠 아기는  
결국 사망했고, 이러한 과정에서 산  
모의 “과거”를 알게 된 시집에서의 따  
가운 눈총에 떠밀려 산모는 산후 몸조  
리도 제대로 못한 채 보따리를 싸게  
되었다.

### RH-형의 임신,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

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미리 산모  
가 RH-형인 줄 알면 첫아기를 낳은  
지 72시간 내에 로감(Rhogam)이라  
고 하여 RH+ 항체 형성을 억제하는  
주사를 맞게되면 두 번째 아기를 안심  
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.

그러나 혼전에 임신한 경우, 아무  
도 몰래 급하게 이를 처리하려는 여성  
중 RH-형 여성의 임신에 따르는 이  
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결혼, 첫아기  
를 중절로 처리한 경우를 숨기고 병원  
에 온다면 이처럼 아기는 물론 산모의  
건강마저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것  
이다.

따라서 자신이 RH-형인 여성이라  
면 첫아기를 중절했는지 출산했는지  
관계없이 반드시 그 당시 치료받은 의  
사에게 자신의 혈액형이 RH-임을  
밝히고 RH+에 대한 항체형성을 억제  
하는 주사를 맞음으로써 자신은 물론  
그 다음에 임신하는 아기를 위협으로  
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다. **㉔**